

경남 방언의 억양 연구*

이 병 운

[차 례]

1. 들어가기
2. 연구방법
3. 어절의 억양
 - 3.1 토씨의 억양
 - 3.2 씨끝의 억양
4. 월의 끝 억양
5. 맺음말

1. 들어가기

경북방언을 포함한 경상방언은 그 억양적 특징 때문에 서울말에 잘 동화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서울말에 잘 동화하지 못하는 경상방언이 가지는 억양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경남방언과 중부방언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일반적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억양(intonation)은 음절단위에 얹히는 높이(pitch)의 변화로서 주파수(진동수를 Hz단위로 나타낸 수)로 나타나지만, 개인과 성별에 따라 다른 주파수 대역을 가지므로, 절대적인 높이로써 나타낼 수 없고 상대적인 높이로써 그 차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중세국어나 경상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낱말 단위에 얹히는 소리의 높이인 성조(tone)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성

조는 낱말의 어휘적 의미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상방언을 제외하고는 길이만 남아 있어 다른 방언과의 비교 연구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실제 발화에서 낱말에 토씨가 불거나, 풀이씨의 씨끝이 굴곡을 할 때 일어나는 어절 단위의 높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월의 끝 억양은 월의 통어적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어절의 억양과 월의 끝 억양을 대상으로 경남방언과 중부방언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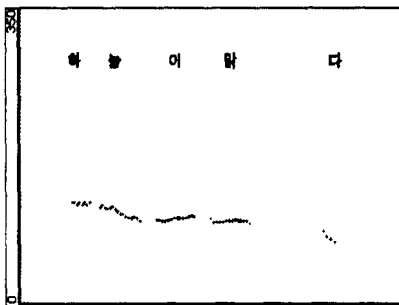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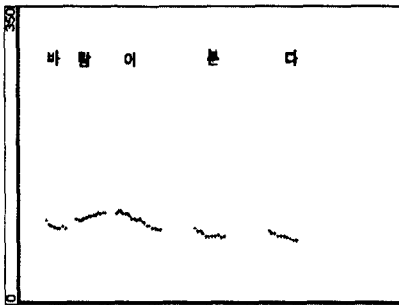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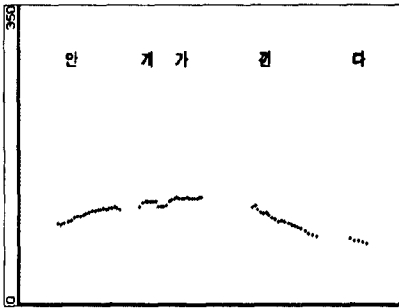
이 연구는 경남방언의 억양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한 선행적 실험으로서, 비슷한 실험조건을 주기 위해 전형적 방언화자인 40대 남성의 경남방언화자와 중부방언화자 각 1인을 실험대상으로 하였고, 실험방법은 선정된 35개의 월을 직접발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음성분석프로그램인 multispeech로 높이(pitch)를 분석하였다.

3. 어절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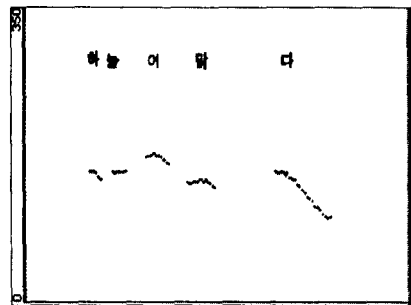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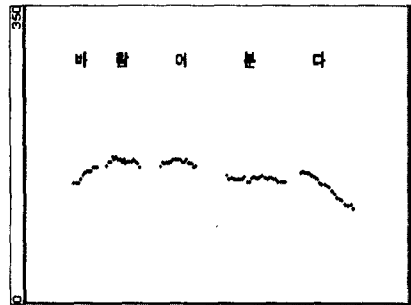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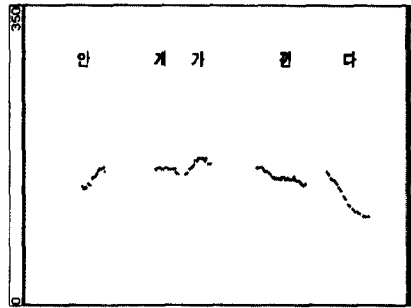
3.1 토씨의 억양

3.1.1 2음절의 임자씨에 결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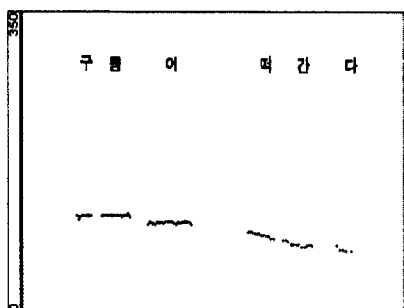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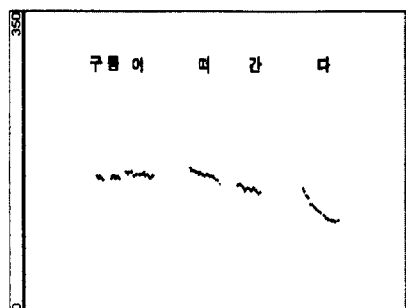
<경남방언>



<중부방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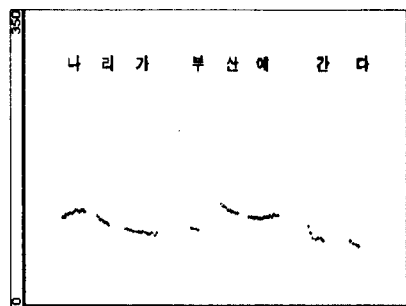


4 우리말 연구 제 7 집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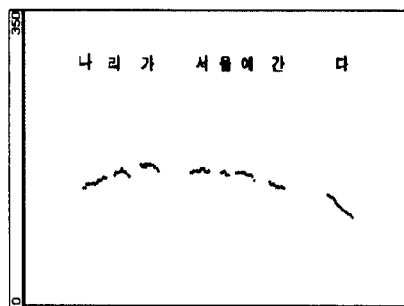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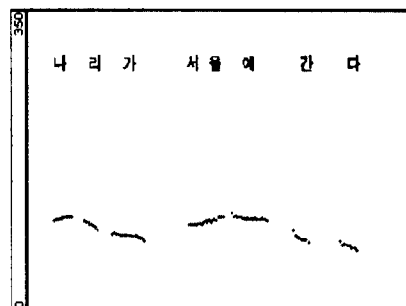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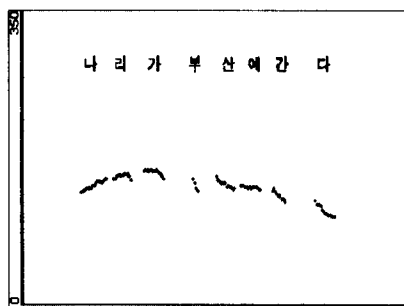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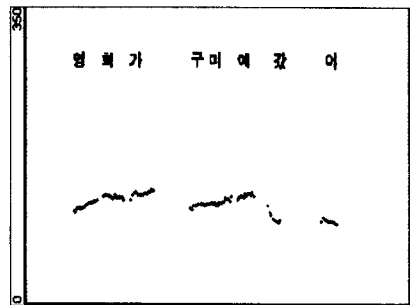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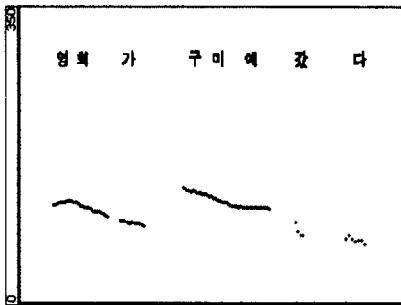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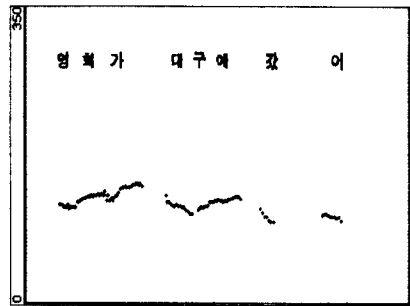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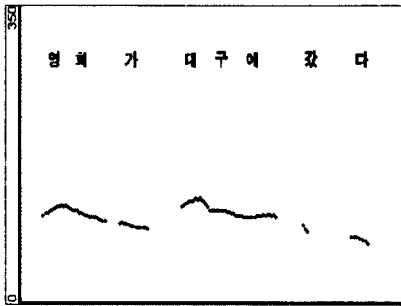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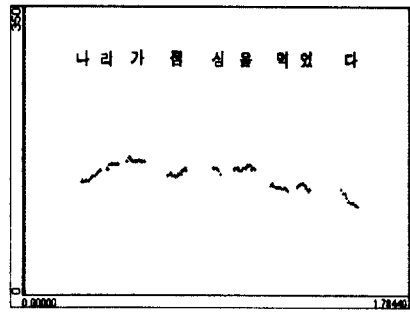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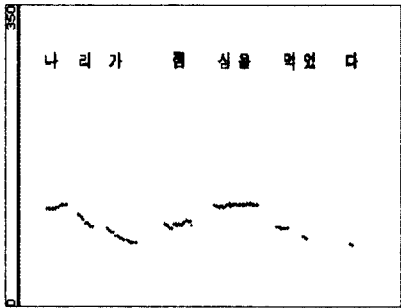
<그림 1 : 2음절, 임자자리토씨>

<경남방언>



<중부방언>





<그림 2 : 2음절, 그밖의 토씨>

경남방언과 중부방언에서 2음절 낱말과 결합된 토씨의 억양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 2음절어와 결합한 토씨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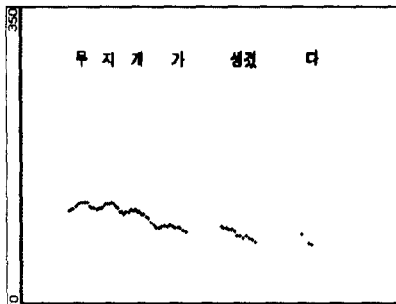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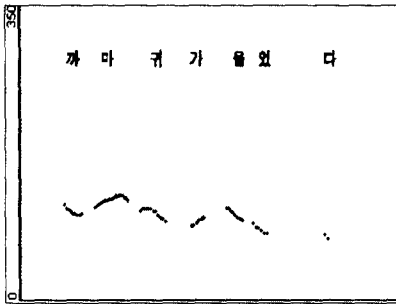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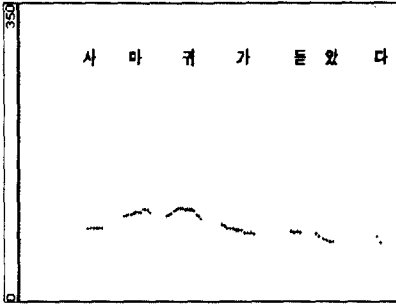
기저 성조	경남 방언	중부 방언
안개[12]	122	233
바람[23]	232	233
하늘[32]	332	223
구름[33]	332	333
부산[23]	122	333
서울[23]	233	333
점심[23]	233	233
대구[32]	322	223
구미[32]	322	223

경남방언에서는 토씨의 억양이 앞음절의 억양보다 낮거나 같다. 이에 비해 중부방언에서는 모든 토씨가 일반적으로 고조[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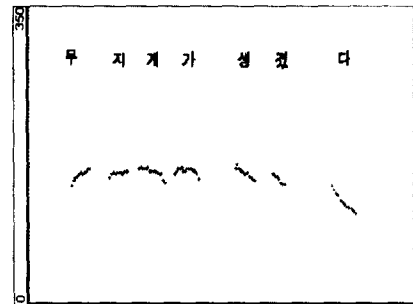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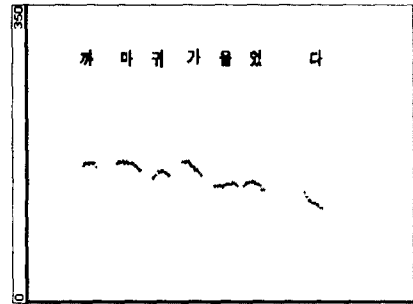
그리하여 어절의 전체적 억양이 경남방언에서는 굴곡조이나, 중부방언에서는 수평조가 지배적이다. 곧 경남방언에서는 임자말이 주로 오는 첫어절의 전체적 억양은 임자씨의 기저성조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끝 억양은 일반적으로 내림조이고, 임자말과 풀이말을 제외한 월성분이 오는 둘째 어절은 내림조와 수평조가 우세하며, 풀이말이 오는 셋째 어절은 내림조이다. 이에 비해 중부방언에서는 임자말이 주로 오는 첫어절은 오름조가 우세하고, 둘째 어절은 오름조와 수평조가 우세하다. 셋째 어절은 경남방언과 마찬가지로 내림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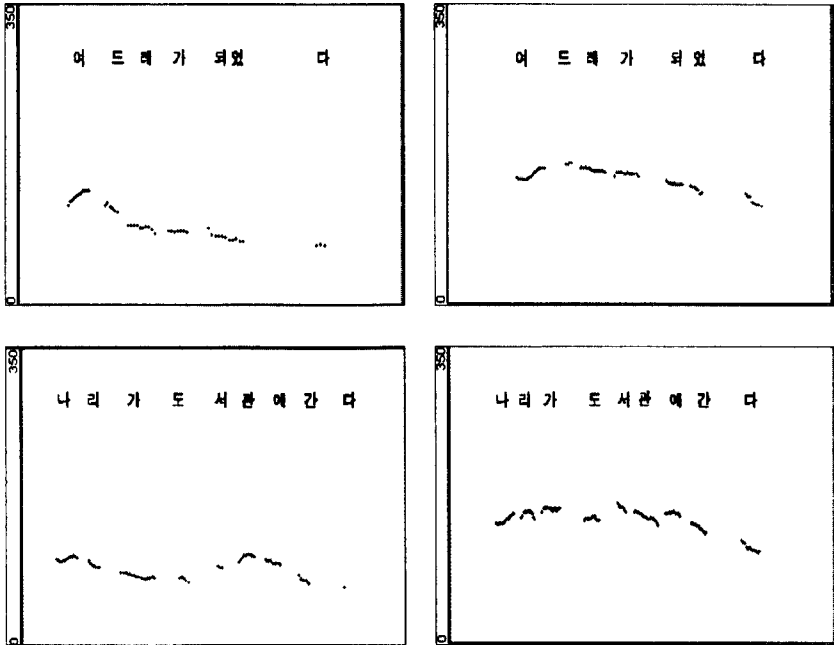
3.1.2 3음절의 임자씨

<경남방언>



<중부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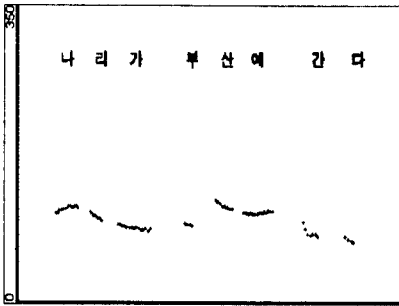
<그림 3 : 3음절어와 결합한 토씨의 억양>

<표 2 : 3음절어와 결합한 토씨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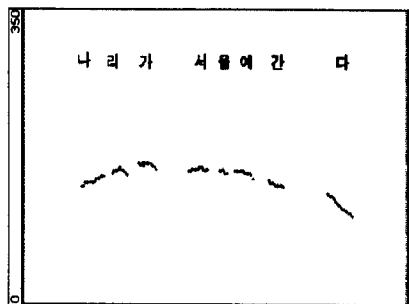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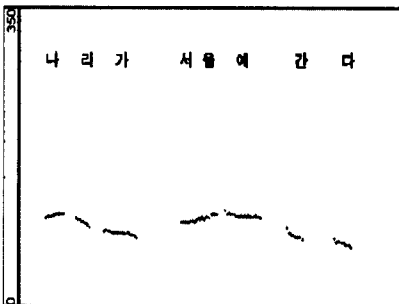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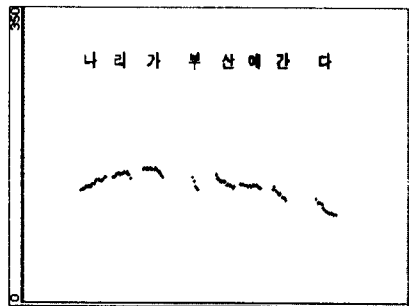
기저 성조	경남 방언	충부 방언
사마귀[122]	1221	2333
까마귀[232]	2321	3323
여드레[322]	3211	2333
무지개[332]	3321	2333
도서관[123]	1232	1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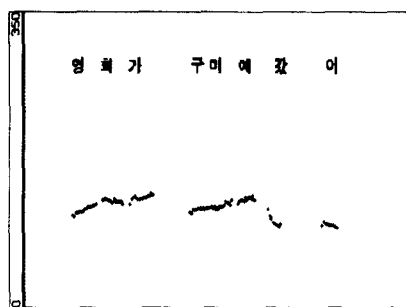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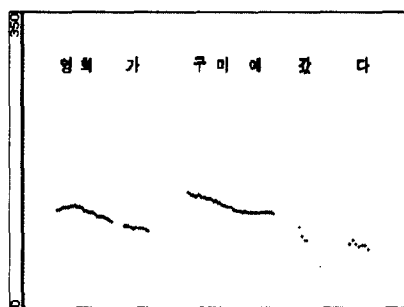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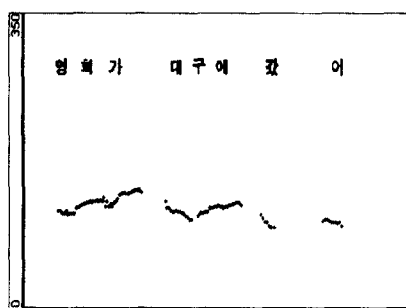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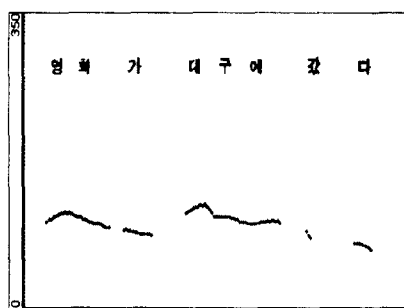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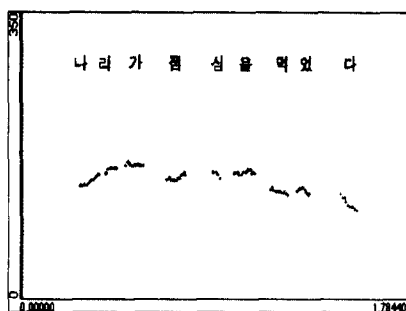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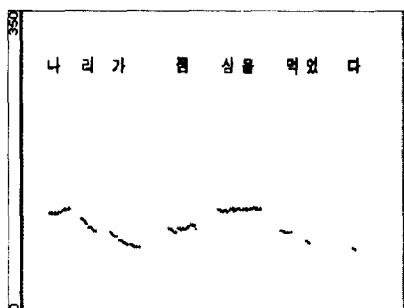
경남방언에서 토씨의 억양이 2음절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앞음절보다 낮거나 같다. 또한 고조를 중심으로 계단식으로 오르거나 낮아진다. 그러나 중부방언에서는 2음절어와 마찬가지로 앞낱말의 기저성조와 관계 없이 고조[3]이다. 이로써 경남방언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오르내림이 계단식으로 반복하여 운율적이다. 그러나 중부방언에서는 이러한 오르내림이 계단식도 아니고 반복적이지도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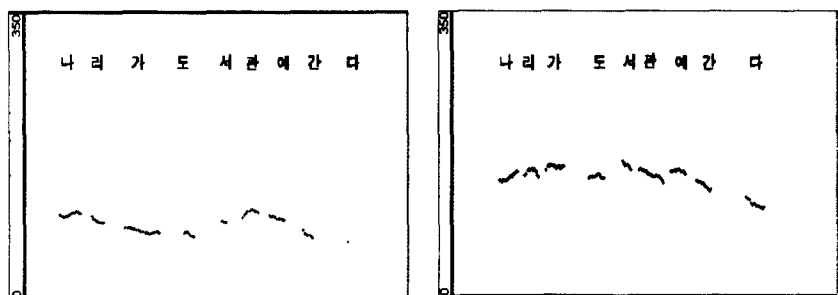
<경남방언>



<중부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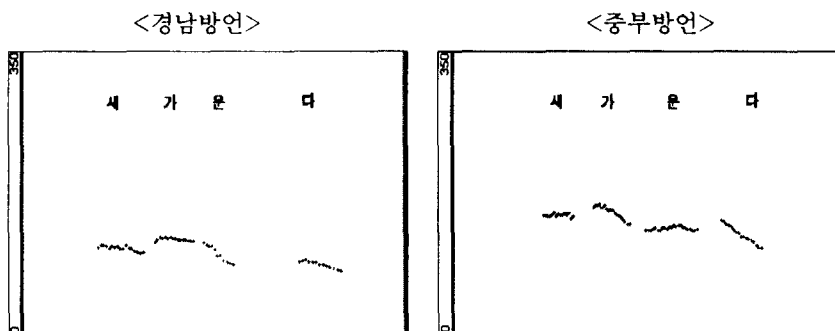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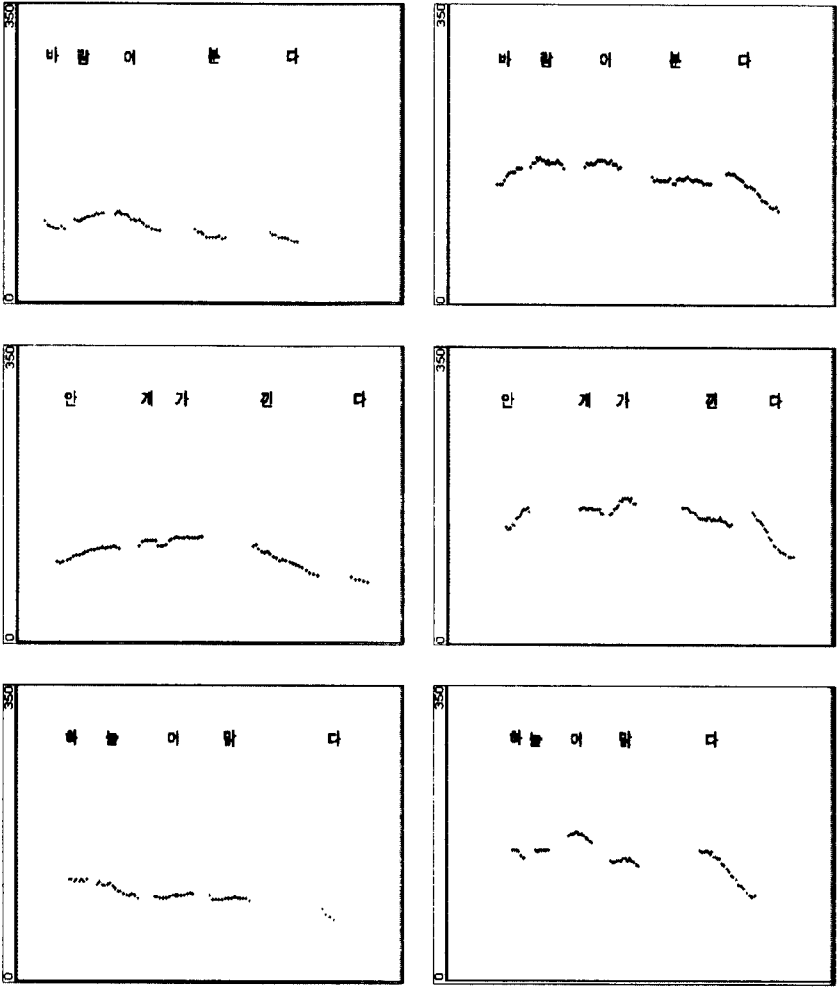
<그림 4 : 어절 단위의 억양>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의 경남방언은 첫어절의 계단식 내림, 둘째 어절의 계단식 오르내림, 끝 어절의 계단식 내림으로 오르내림의 어절별로 규칙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방언에서는 첫어절은 경남방언과 정반대로 계단식 오름이고, 둘째 어절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평조이며, 끝 어절은 '간다'의 경우는 내림조이나, '먹었다'[231]의 경우, '있'의 높이가 오히려 높아 전체적으로 계단식의 오르내림의 폭이 적어 경남방언에 비해 훨씬 비운율적이다.

3.2 씨끝의 억양

3.2.1 맺음씨끝(서술법)의 억양





<그림 5 : 맺음씨끝의 억양>

<표 3 : 맺음씨끝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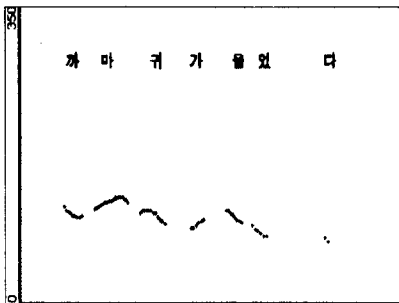
기저 성조	경남 방언	중부 방언
올다[1-]	1.32	23
불다[1-]	22	23
끼다[3-]	21	22
맑다[3-]	21	23

경남방언에서는 서술법 맺음씨끝의 억양이 줄기에 비해 낮은 데서 시작하는 데 비하여, 중부방언에서는 줄기에 비해 높은 데서 시작한다. 또한 끝 억양의 길이가 경남방언에서는 아주 짧은 데 비하여 중부방언에서는 길이가 길다. 이로 인해 경남방언에서는 끝이 명료하게 들리지 않으나, 중부방언에서는 명료하게 들린다. 또한 경남방언에서는 말 끝의 여운이 짧으나, 중부방언에서는 여운이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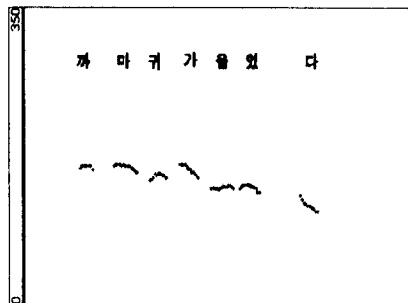
3.2.2 안맺음씨끝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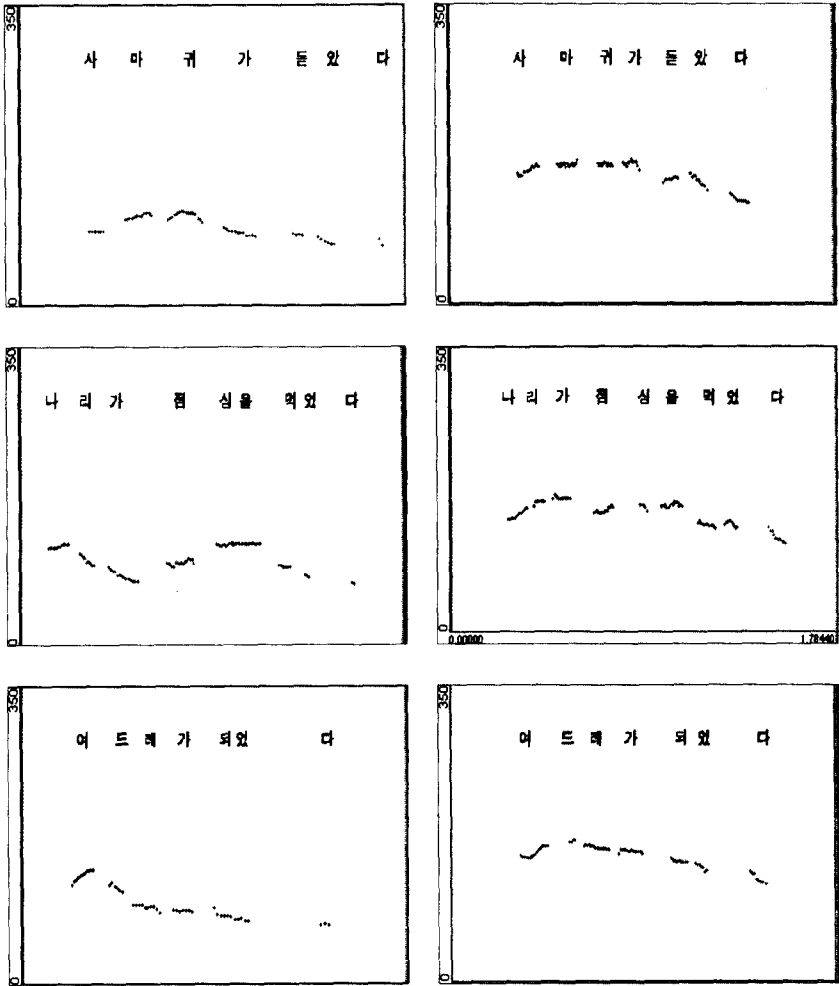
안맺음씨끝에는 높임법 씨끝과 때매김 씨끝이 올 수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과거 안맺음 씨끝의 억양을 살펴보도록 한다.

<경남방언>



<중부방언>





<그림 6 : 안맷음씨끝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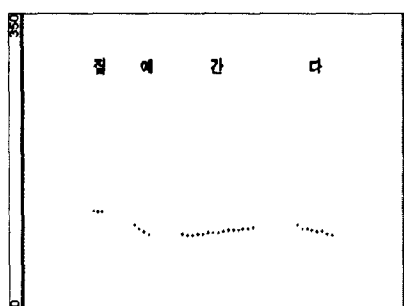
경남방언에서는 줄기의 높이에 비해 때때로 요소 '었'의 높이가 낮으나, 중부방언에서는 줄기의 높이에 비해 같거나 높다. 이것은 끝어절의 억양이 경

남방언에서는 내림조여서 ‘었’의 높이가 줄기에 비해 계단식으로 낮아지나, 어절의 억양이 굴곡조가 아닌 중부방언에서는 때때로 요소 ‘었’의 의미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었’의 억양이 중부방언에서는 경남방언에 비해 흔들리므로 때때로 요소가 분명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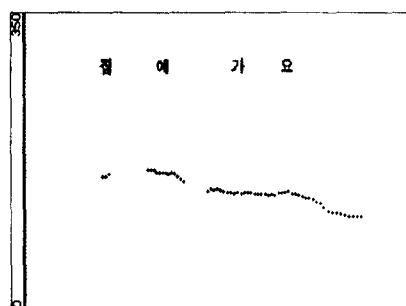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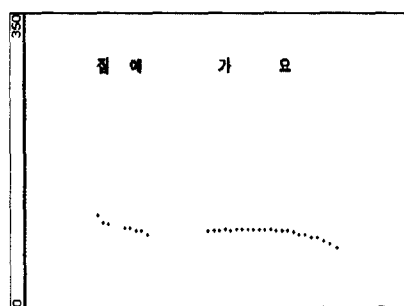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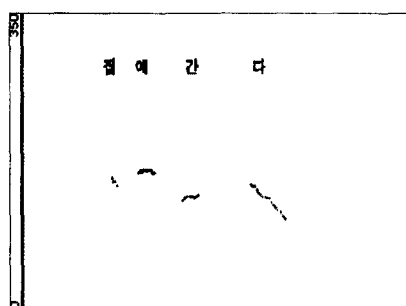
4. 월의 끝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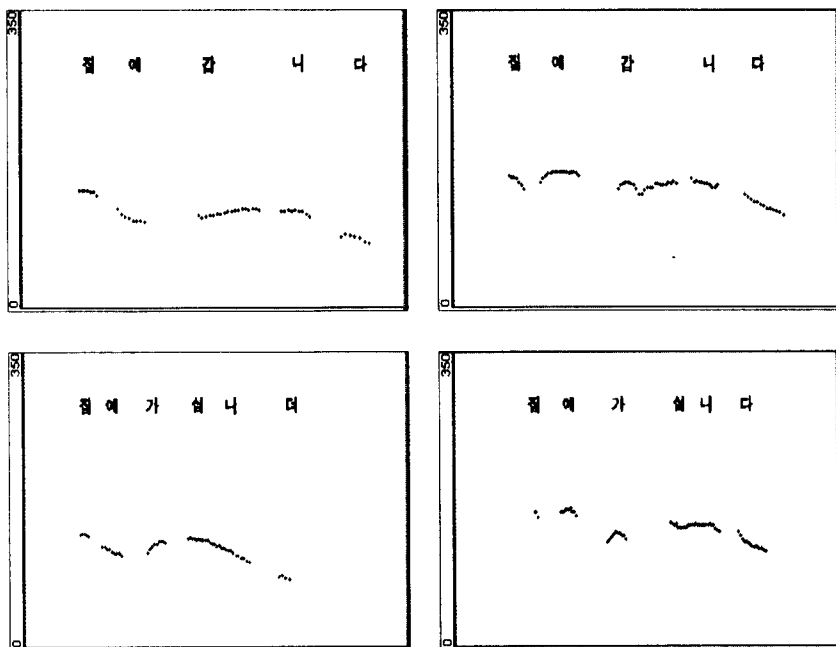
4.1 서술월

<경남방언>



<중부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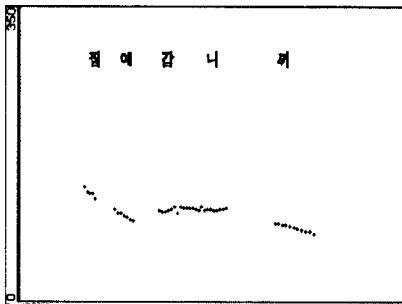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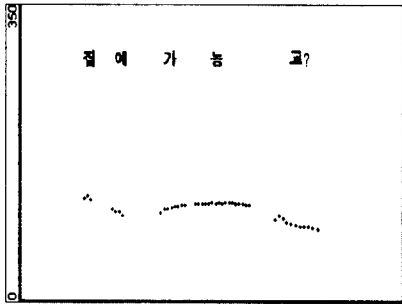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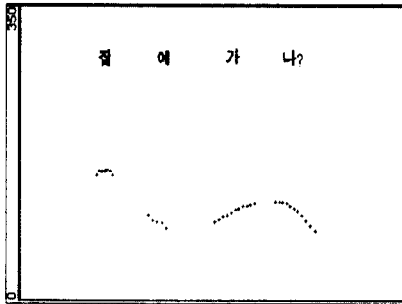


<그림 7 : 서술월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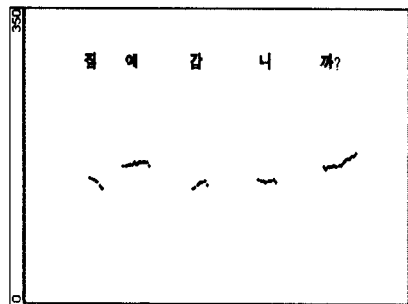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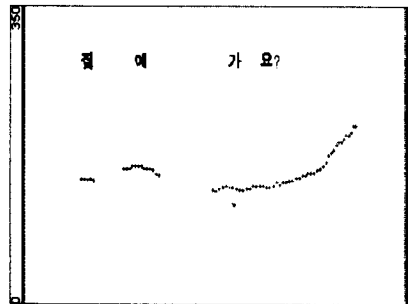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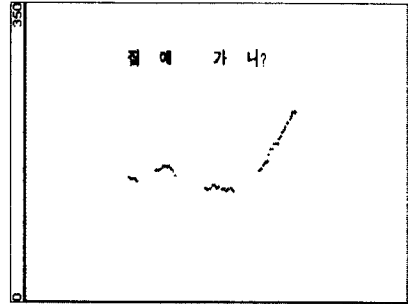
서술월의 경우 경남방언과 중부방언에서 모두 내림조이나 경남방언에서는 내림의 정도가 완만하고 끝이 짧다. 이에 비해 중부방언의 경우 내림의 정도가 크고 끝이 길다. 이로써 중부방언의 서술월의 끝 억양은 경남방언에 비해 분명하게 들리고 여운이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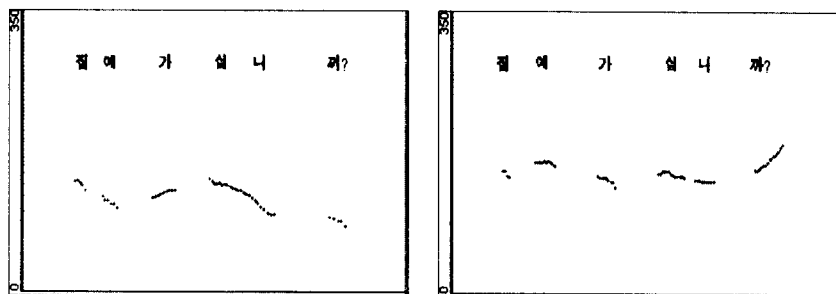
4.2 물음월

<경남방언>



<중부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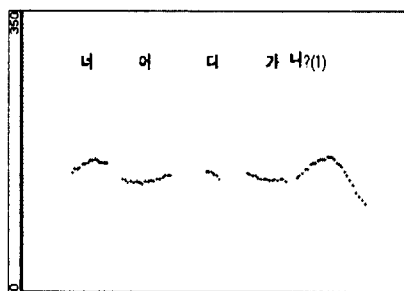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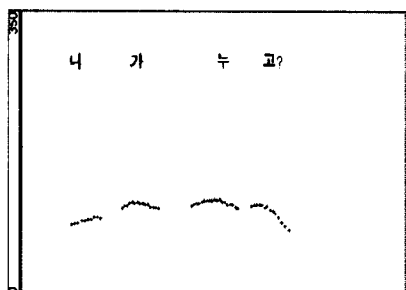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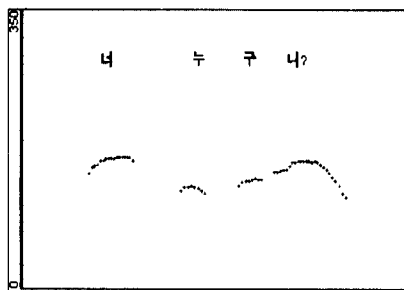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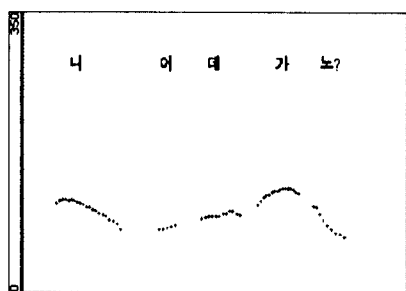
<그림 8 : 물음말의 억양>

경남방언과 중부방언의 월의 끝 억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

<중부방언>



<경남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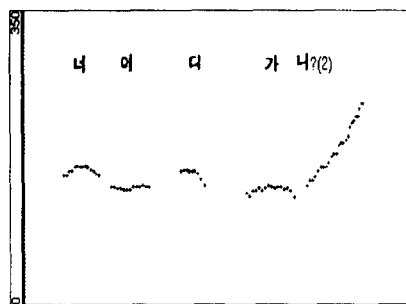
<그림 9 : 물음말이 있는 물음말의 억양>

음월에서이다. 곧 중부방언에서는 월의 끝 억양이 오름조이지만, 경남방언에서는 내림조이다. 그러나 중부방언에서도 물음말이 있는 물음월의 경우 월의 끝 억양은 경남방언과 같이 내림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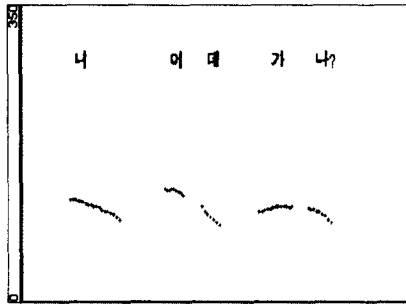
그러나 ‘어떤 곳’의 의미인 ‘어디’일 경우(아래의 왼쪽 첫째 그림) 중부방언에서는 일반적 물음월의 억양인 오름조이다. 그래서 중부방언에서는 이 월의 의미적 차이를 월 끝의 억양으로 변별한다. 곧 물음말의 물음월에서는 내림조이고, 어떤 곳에 가는가를 확인하는 물음월에서는 오름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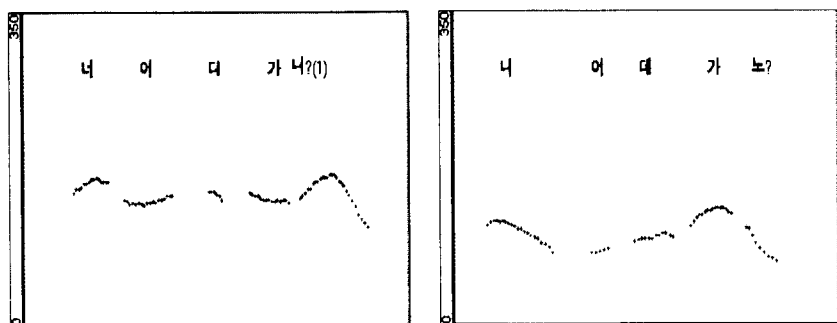
그런데 경남방언에서는 물음말인 ‘어디’(장소를 물음)와 물음말이 아닌 ‘어디’(어떤 곳)의 물음월의 끝 억양은 아래의 오른쪽 두 그림에서 보듯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같은 내림조이다. 그러므로 경남방언에서는 월 끝의 억양으로 구별하기 보다는 다른 두 ‘어디’의 억양으로 구별하게 된다. 그래서 오른쪽 위의 그림에서 보듯 ‘어떤 곳’의 의미로 쓰인 ‘어디’에 초점이 놓여 ‘어’의 높이가 아주 높아 ‘어디’의 억양은 내림조이고, 물음말의 ‘어디’에서는 ‘가나’에 초점이 놓여 ‘가’가 강조되어 높고, ‘어디’는 약한 오름조이다.

<중부방언>



<경남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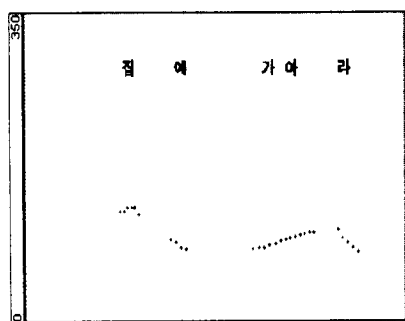


<그림 10 : 어디(2)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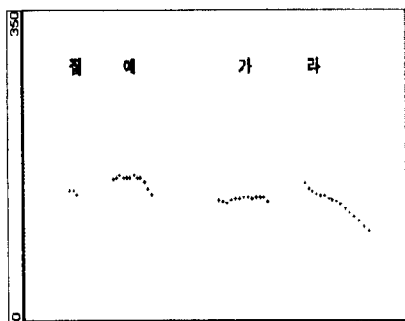
4.3 시킴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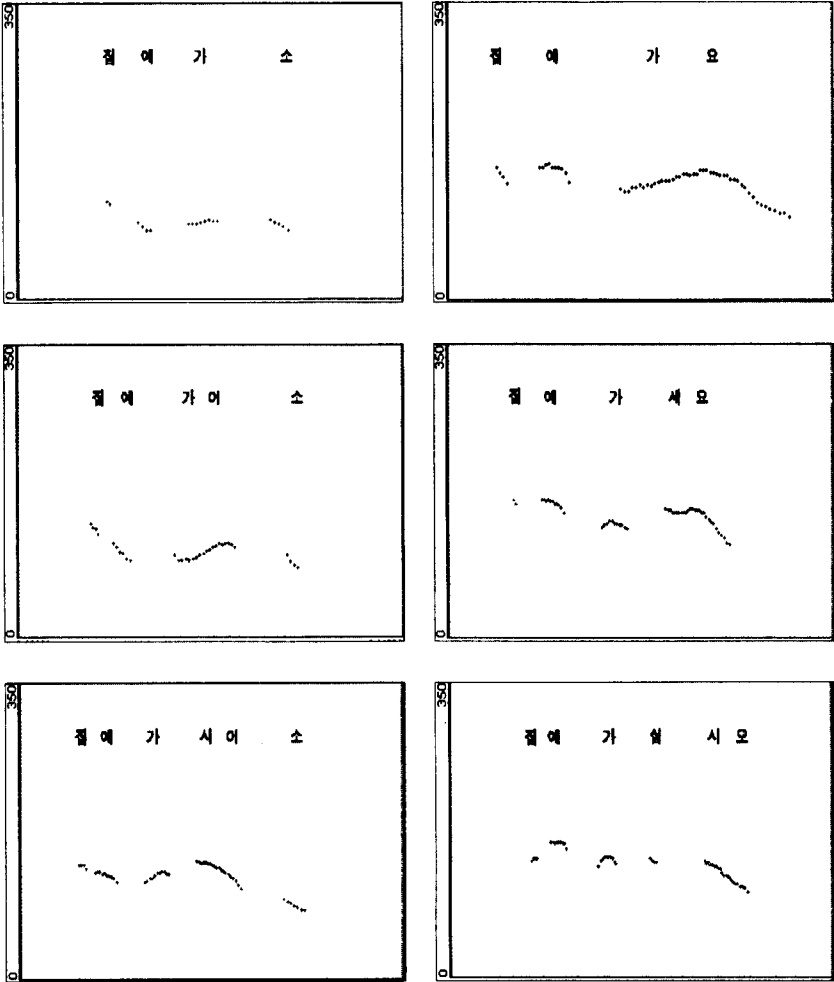
시킴월의 끝억양은 경남방언에서나 중부방언에서 모두 내림가락이다. 그러나 서술월에서와 마찬가지로 경남방언에서는 가락의 길이가 짧고, 중부방언에서는 내림의 길이가 길다.

<경남방언>



<중부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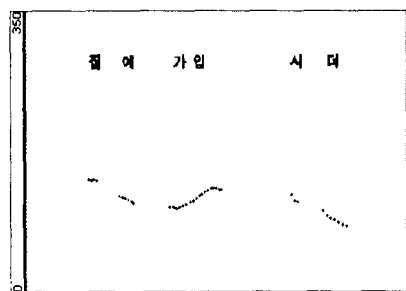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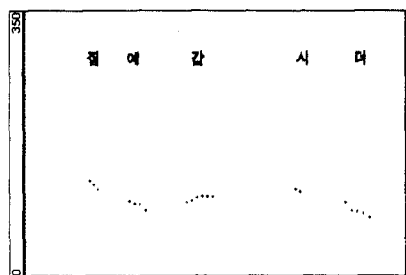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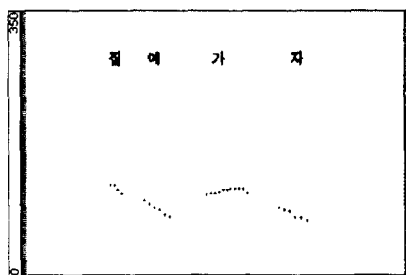


<그림 11 : 시킴월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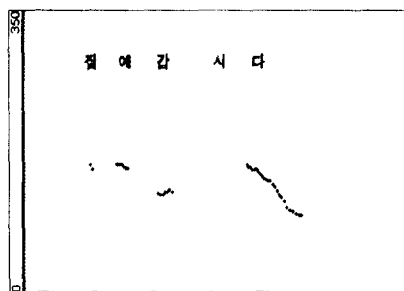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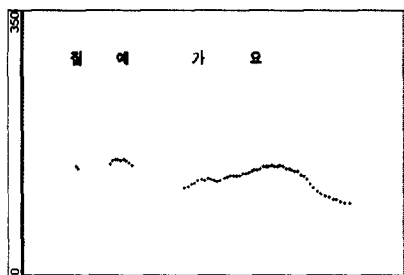
4.4 꺾임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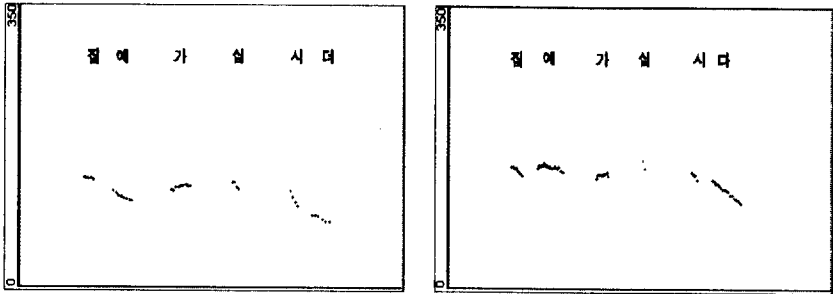
꺾임월의 끝억양에서도 경남방언이나 중부방언에서 모두 내림조이다. 서술월, 시킴월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부방언에서는 경남방언에 비하여 끝이 길고, 높은 데서 시작한다.

<경남방언>



<중부방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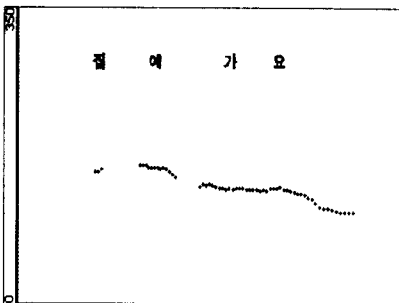


<그림 12 : 피임월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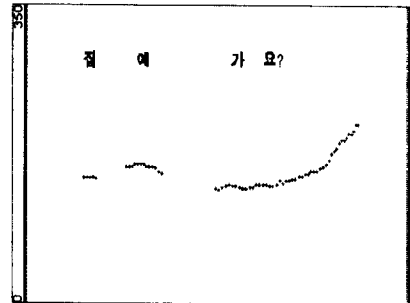
4.5 중부방언 '가요'의 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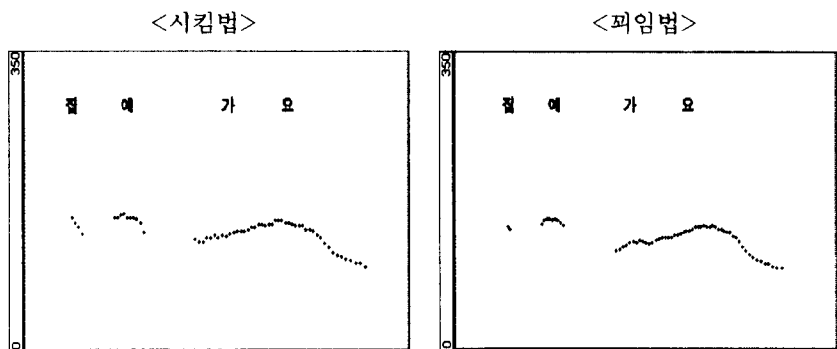
중부방언 높임법의 '해요'체에서는 서술법, 물음법, 시킴법, 피임법의 차이가 씨끝의 형태소로는 변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침법의 변별은 억양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물음법은 월의 끝 억양이 오름조이므로 확연히 구별이 되지만, 서술법, 시킴법, 피임법의 차이를 경남방언 화자들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서술법>



<물음법>





<그림 13 : '가요'의 억양 차이>

첫째, 물음월에서는 끝 억양이 오름조로서 다른 셋과는 확연히 변별된다. 둘째, 서술월, 시킴월, 피임월의 끝 억양은 모두 내림조이나, 서술월에서는 그 내림이 아주 완만하다. 그러나 시킴월과 피임월에서는 그 내림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 셋째, 시킴월에서는 '요' 억양이 곧 바로 내림조이나 피임월에서는 완만한 짧은 오름이 있고 나서 내림이 따른다. 곧 피임월에서는 '요'의 억양에 오르내림의 감침이 있는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경남방언과 중부방언의 어절과 월의 끝 억양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절의 억양에서 경남방언은 전체적으로 어절단위로 오르내림이 굴곡조이다. 곧 일반적으로 첫어절은 임자말로서 끝이 내림조이고, 둘째 어절은 임자말과 풀이말을 제외한 다른 월성분(부림말, 위치말, 방편말, 견줄말 따위)이 주로 오는 어절로서 첫음절이 고조일 경우 내림조이고, 중조나 저조일 경우 오름조이며, 끝어절은 주로 풀이말이 오는 것으로 내림조이다. 그리하여 임

자자리토씨의 억양은 일반적으로 앞 음절보다 낮다. 그러나 다른 토씨의 경우 임자씨의 기저성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달리 나타난다. 그러나 중부방언의 경우 모든 토씨는 고조를 띠어 어절 끝의 억양이 오름조이다.

풀이말이 오는 끝 어절은 서술월의 경우, 경남방언에서는 맺음씨끝의 억양이 내림조이므로 가장 낮고 짧다. 그러나 중부방언의 경우 줄기의 억양보다 높은 데서 시작하여 그 내림이 크고 길다. 그러므로 중부방언의 경우 말끝이 분명하게 들리나 경남방언의 경우 분명하게 들리지 않는다.

또한 안맺음씨끝(과거)이 올 경우 경남방언에서는 줄기의 억양에 비해 낮으나, 중부방언에서는 높거나 같다. 이로써 이 때매김 요소가 중부방언에서는 흔들리게 된다.

월 끝 억양의 경우, 경남방언과 중부방언의 가장 큰 차이는 물음월에서이다. 곧 경남방언에서는 내림조이나, 중부방언에서는 오름조이다. 서술월, 시김월, 피임월에서 경남방언에서는 중부방언과 달리 끝이 짧고, 내림이 완만하다.

참고문헌

- 김영만(1966), <경남방언의 성조>, 국어국문학31, 국어국문학회
 김주원(1992),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 어학연구 37.3, 서울대 어학연구소
 김차균(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체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김차균(1933), 《우리말의 성조》, 태학사.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 서울대 어학연구소.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체계>, 언어학 13, 언어학회.
 허 웅(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최현배선생 환갑기념 논문집.
 허 웅(1986), 《국어음운학》, 샘문화사.